

새정치 계파갈등에 등돌린 민심... '호남정치 복원' 선택했다

무소속 천정배 승리 배경

야권 개혁·정치 쇄신 기대감
인지도·진정성 바탕 지지 얻어

'성완중' 주도권 못잡은 새정치 제1야당 역할 부재 민심 이반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성난 지역 민심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과 계파갈등 등에 실망감을 보였던 민심이 그대로 표심으로 이어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보다는 천 후보가 선거 슬로건으로 내건 '야권 쇄신'과 '호남 정치 복원'에 기대를 건 민심이 많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선거 중반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터졌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1야당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정치개혁과 야권 쇄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 후보의 인지도와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도 유권자들이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누적되어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이번 선거에서 '폭발'했고, 이런 가운데 천 후보가 "제1야당에 회초리를 들겠다"며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린 민심을 보듬는 전략이 주효했다.

실질 선거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은 만만치 않았다. 제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의 연이은 패배에 이어 지난해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중앙당이 지역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잇따라 '전략공천'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했었다.

여기에 당내 계파간 갈등과 제1야당의 역할 부재도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거기간 중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광주 정서로 작용하면서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광주 서구를 선거구를 사실상 방치해 놓은 점도 이번 선거에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에게 선거구를 넘겨준 뒤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수년째 공석인 '사고 지역위원회'로 방치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선거기간 중 새정치민주연합 문제인 대표가 6차례나 광주를 방문하고 당 지도부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투입돼 '동네 조직'까지 챙겼지만, 유권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 서구를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대다수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번 만큼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할 수 있을까'였다"면서 "그런데 결국은 광주시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회초리를 든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천 후보 측은 "선거기간 중 많은 유권자들이 야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력을 서구유에 집중했지만, 지역민의 실망감은 돌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29일 전남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에서 선거개표 사무원들이 후보별 투표지를 집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권 전면 쇄신...정권 교체 밀알 되겠다"

천정배 인터뷰

유권자 위대한 선택 받들어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 것

야당의 뒷발인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천정배(61) 당선자는 29일 "야권을 전면 쇄신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천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광주의 민심은 호남정치의 부활과 야권의 변화를 거쳐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정치를 바꿔 차별 없고 불만 없는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승리는 위대한 광주 서구를 유권자들의 승리다"면서 "오직 주민들의 뜻을 따르고 대변했을 뿐인데, 이렇게 서구를 대변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준 높은 광주시민, 특히 야권의 쇄신과 변화를 갈망한 서구를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 호남 정치 부활을 절실하게 바랐던 민심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천 당선자는 이번 선거 의미에 대해 "언제나 야권 쇄신의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핵심에 섰던 광주에서 다시 한번 야권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가장 큰 의미로 본다"면서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광주의 민심은 호남정치 부활과 야권의 변화를 거쳐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기간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조직과 국회의원을 동원한 물량공세로 광주의 바다 민심을 왜곡시키려 했을 때가 가장 어렵고 안타까웠다"면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야 할 문제인 대표가 6



번이나 광주를 찾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사수를 위해 각 동력을 맡았다는 말에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했다.

그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광주 정치를 바꾸고 호남정치를 살려내겠다. 지역 차별없는 나라,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일이 없는 지역평등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제 한국정치를 바꿔, 차별도 없고 불만도 없는 정의로운 통일 복지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野 심판론' 관철...非새정치 집결 가능성

호남 정치 새 구심점 되나

야당의 뒷발 광주에서 '전풍'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재기한 천정배 당선인이 새정치연합의 안방에서 '야당 심판론'을 관철시키면서 일거에 호남의 맹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벌써 천 당선인 측을 중심으로 한 야권내 비(非) 새정치연합 세력이 집결하며 본격적인 야권재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새정치연합으로서도 천 당선인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애초 천 당선인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지난 7·30 재보선에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양측의 악연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양측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천 당선인은 '성완중 파문' 정국에서 새정치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고 몰아붙이는 등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처럼 지금은 비록 새정치연합과 등을 돌렸지만, 천 당선인은 한때 야당 내 쇄신파를 대표하는 인사였다. 천 당선인은 1996년 정계에 입문한 뒤 정

동영 전 의원, 신기남 의원과 함께 정풍운동을 펼쳐 '천·신·정'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단숨에 인지도를 높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7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를 맡아 국가보안법 폐지 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법무장관 시절에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로 파장을 일으켰고, 18대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때의 원직 사퇴까지 선연할 정도로 선명한 투쟁노선을 견지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당의 배제방침으로 신청을 철회, 권은희 의원의 당선을 지켜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 때의 공천배제는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천 당선인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만류를 뿌리친 채 탈당 후 야권의 심장부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새정치연합에 가장 큰 고만을 안겨주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사 63주년 MG새마을금고

Keep Safe!

예금·적금도 새마을금고라면 안심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예·적금 상품을 예금저축제도도와 지원준비금 제도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